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 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 수 지¹⁾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 선 희²⁾

승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권 두 리³⁾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중년기 아버지들이 부모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여 그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성인기 자녀를 1명 이상 둔 아버지 총 11명을 심층 면접하고, 수집된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25개의 의미단위와 11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4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4가지 범주는 ‘확장된 자녀청소년기와 지연된 자녀독립기’, ‘자녀의 발달에 따른 아버지 역할의 변화’,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노년기를 맞이하기’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인 자녀에 대한 걱정과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었고, 성인 자녀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으며, 자신의 성인기와 다른 자녀의 모습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본 연구 참가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았고, 어린 시기에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지만 아버지 자신의 노력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가 변화됨을 느끼게 되었다. 셋째,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양육에서 벗어나 자녀와 친밀하게 지내려 하였으며, 성인 자녀를 위해 끊임없는 희생을 보였다. 넷째, 성인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부모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나가야 함과 동시에 자식으로서 노부모를 보살피고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노년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학문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초기성인기 자녀, 아버지의 부모 역할 경험, 현상학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4375).

1)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특임교수

2) 교신저자 : 승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sunny@mail.kcu.ac)

3)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생

I. 서론

성인기는 직업인, 배우자, 부모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개별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인해 이를 반영하는 신조어들도 급부상하고 있는데, 20대~30대의 성인이 된 자녀들이 학업을 마치고 졸업한 이후에도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기대고자 하는 미혼자들을 뜻하는 ‘깡거루족’, 부모의 곁을 떠났던 자녀들 중 다시 부모의 품속으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연어족’, 결혼 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신의 자녀 양육을 맡기는 성인들을 지칭하는 ‘스크럼족’ 등이 해당된다(최연실, 2014; 한겨레, 2017). 이러한 신조어들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가 학업, 취업 그리고 결혼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부모세대의 양육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 25~34세의 청년 자녀를 대상으로 취업과 결혼에 대한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학업시기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부모의 58%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고, 취업시기에는 10명 중 7명이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 동안 부모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결혼시기에는 여성 75.5%, 남성 68.3%가 결혼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장

혜경, 이윤석, 2017). 이와 같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며 도움을 받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등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다(최연실, 2014).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청년층의 실업의 만성화, 고용 불안정의 심화, 실질 임금의 하락, 결혼하는 연령의 상승, 독신의 증가, 주택 구입 가격 상승 등 사회적 문제 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Descartes, 2006; Vassallo, Smart, & Price-Robertson, 2009).

이러한 상황을 가족생활주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독립기에 놓여있는 초기 성인 자녀를 둔 중년기 부모들은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노부모를 봉양하고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Carter & McGoldrick, 2000)에 있으며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제를 안고 있다(김명자, 1991). 즉, 중년기 부모는 자녀의 학업, 취직, 결혼, 독립의 문제로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부부관계 및 봉양해야 하는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김윤민, 2002; 안태용, 2013). 중년기는 과거 전통적 유교주의와 집단주의 사고에 익숙한 윗세대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녀세대의 사이에서 적응해야 하는 세대이며, 다른 발달 시기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중년기에 발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사회적, 정서적인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중년기 위기(mid-life crisis)라 한다(Gould, 1978; 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

Mckee, 1978). Jung(1954)은 중년기 전환기에 당면하는 발달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위기로 보고, 혼돈과 고통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내면적 자아를 발견하여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이 확대된다고 보았다. 특히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중년기 남성들은 조기퇴직, 실직문제와 이에 따른 가정생활의 불안정과 같은 위기의식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은퇴는 중년기 남성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양자의 주요 역할을 한 남성에게 있어서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사건이다. 실제로, 은퇴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건강감이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옥상미, 정혜성, 2016), 평생 일해 온 직장에서 자신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년기 남성은 우울, 자존심의 손상, 무가치함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인영, 2007).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의 중년기 아버지들은 은퇴, 퇴직에 대한 불안과 함께 노후 준비까지 고려해야하는 과업에 놓여 있는 시기로, 여러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켄거루족에 대한 관심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부모에게 의존하는 초기성인기 자녀와 중년기 부모 및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기 시작했으나, 아직 중년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자녀 양육문제가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온

반면(김광웅, 이인수, 1998),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아버지 상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자녀와 친근하게 소통하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아버지의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었고(이숙현, 서혜영, 2002; Lamb, 1986), 이러한 기대는 아버지들의 부모 역할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기 및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영유아기의 아버지 역할이나 양육참여를 강조한 연구(강민성, 김경은, 2017; 권혜진, 2010; 김은수, 김혜순, 2019; Lamb, 2013; Lamb & Tamis-LeMonda, 2004)나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Brown, Mangelsdorf, & Neff, 2012),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김미영, 조선희, 2018; 김정민, 김혜민, 김용주, 2010; 남진열, 김상미, 2011)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성인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 부모와의 관계를 미혼 성인 자녀의 관점에서 본 연구(강유진, 2016; 강현선, 2018; 김은정, 2014), 어머니, 아버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이윤석, 2011), 성인 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이나 경제적 지원 실태를 정량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김영란 등, 2017; 최연실, 2014)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성인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많이 발견되고 있으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비롯하여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 역할 경험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로서 성인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대해 단편적인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다루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양적 연구 외에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요인들을 살펴본 질적 연구(강현신, 2018)가 보고되고 있으나, 자녀 관점이 아닌 중년기 아버지 관점에서 살펴본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중년기 아버지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양적 연구들(변선아, 2008; 용장식 2004)이 주로 수행되었으며, 질적 연구로는 만혼인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아버지됨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박지원, 2016)만이 발견되어 독립기의 자녀를 둔 중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요약하면,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시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 및 경험을 밝혀왔고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중년기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외부자의 관점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즉, 대부분의 연구는 아버지 역할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로서, 독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초기성인기 자녀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오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는지 등에 대한 과정들은 다루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서 중년이라는 발달적 전환기에 있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해보고,

그러한 경험에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시각에서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중년기를 보내면서 겪는 경험들과 그들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참여자의 경험을 가까이에서 분석하는 현상학적(phenomenology) 연구방법을 통해 기술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자료 분석 절차의 체계적인 단계와 조직적, 구조적 기술을 조합하는 지침을 통해 그들이 인식한 주관적인 세계와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심리학적 현상학(Moustakas, 1994) 접근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기의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성인 자녀를 양육하며 중년기 발달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중년기의 발달적 과업이 서로 맞물려 어머니와는 다르게 아버지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년기를 맞이한 아버지들이 겪어내고 있는 살아있는 경험과 이들의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상담 현장이나 중년기 남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논의 시 경험적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 1.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부모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연구문제 2.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

의 부모 역할 경험에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

하며 가족생활주기상 자녀독립기이지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초기성인기 자녀가 있는 아버지로서 이에 해당하는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준거적 선택을 하여 11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현상학적인 접근은 일정한 현상을 온전히 경험한 일군의 개인들과 현상을 탐구하여 대상 수는 3~4명 또는 10~15명으로 규모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Creswell, 2015)에서 본 연구의 참가자 수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표 1에

표 1.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N = 11)

Participant (참가자)	연령 (만)	결혼 유형	동거 가족	학력	직업	부부합산 월평균수입 (만 원)	자녀정보 (성, 연령, 직업, 결혼여부)
참가자 1	59	결혼 중	부부, 자녀	대졸	서비스업	701~900	1) 남(29), 사무직, 미혼 2) 남(27), 대학생, 미혼
참가자 2	58	결혼 중	부부, 자녀	대학원졸 (박사)	전문직	901~1000	1) 남(29), 대학원생, 미혼 2) 여(25), 대학원생, 미혼
참가자 3	66	결혼 중	부부, 자녀	대졸	기타	301~500	1) 남(28), 군인, 미혼 2) 여(25), 서비스직, 미혼
참가자 4	63	이혼	어머니	대졸	기타	100~300	1) 남(34), 자영업, 기혼 2) 여(30), 교직, 미혼
참가자 5	57	결혼 중	부부, 자녀	고졸	전문직	100~300	1) 여(29), 사무직, 미혼 2) 남(27), 생산직, 미혼
참가자 6	54	결혼 중	부부, 자녀	대학원졸 (석사)	전문직	501~700	1) 남(26), 대학생, 미혼 2) 남(23), 대학생, 미혼
참가자 7	58	결혼 중	부부, 자녀	대졸	자영업	301~500	1) 남(26), 대학생, 미혼 2) 남(24), 전문직, 미혼
참가자 8	63	결혼 중	부부, 자녀	대학원졸 (석사)	전문직	901~1000	1) 여(33), 사무직, 미혼 2) 여(27), 사무직, 미혼
참가자 9	60	결혼 중	부부, 부(모), 자녀	대졸	무직	501~700	1) 여(36), 자영업, 기혼 2) 여(33), 사무직, 미혼 3) 남(27), 사무직, 미혼
참가자 10	54	결혼 중	부부, 자녀	대졸	자영업	701~900	1) 남(27), 사무직, 미혼 2) 여(25), 대학원생, 미혼
참가자 11	56	결혼 중	부부, 자녀	대졸	사무직	701~900	1) 여(27), 대학생, 미혼 2) 여(24), 대학생, 미혼

나타난 연구 참가자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5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분포되어 있고, 1명의 참가자를 제외하고 모두 결혼 중인 상태이다. 참가자의 학력은 대부분 대졸 이상이었으며, 자녀수는 모두 2명 이상이었고 자녀의 결혼 상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이었다. 초기성인기 자녀의 연령은 24~33세였고 직업 상태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취업을 한 상태로 취업유무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 자녀의 취업의 상태가 다양한 상황이 오히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 현상을 드러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 참가자로 모두 포함하였다.

2. 심리학적 현상학 접근

본 연구에서는 Moustakas(1994)가 제안한 심리학적 현상학 접근을 적용하였다. Moustakas(1994)의 초월론적 또는 심리학적 현상학은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덜 초점을 두는 반면에, 연구 참가자의 경험에 대한 기술에 더 초점을 두며 판단중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초월론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신선하게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Moustakas, 1994).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고 관점들을 괄호 치기하여 연구 참가자들의 경험을 보다 본질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과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9년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구자 2인이 각 1명씩 총 2명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예비 인터뷰를 1시간 30분씩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예비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 질문지 내용이 적절한지와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연구자 3인이 각자 자신이 맡은 연구 참여자와 미리 시간약속을 한 후 1회의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질문은 내가 자녀의 나이였을 때의 모습과 지금 자녀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과거 부모 역할과 현재 나의 부모로서의 역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녀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를 지나 지금 성인이 되는 동안 부모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 같은지,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부부간 부모 역할이나 가사분담 등 역할 변화가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었는지, 자녀를 둔 부모의 의미, 역할, 정체성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노년기에 대한 마음가짐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든 인터뷰는 녹취되어 아동학을 전공한 석사과정의 8인의 연구 보조자가 전사를 실시하였고 매 회 인터뷰가 끝난 후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자는 자신이 느낀 소감을 연구노트에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전사한 자료 총 144페이지와 연구자가 작성한 노트가 자료 분석에 사

용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첫째, ‘수평화(horizontalization)’로 연구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전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 참가자들이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진술문’이나 문장, 인용문을 강조하였다. 이후에 연구자는 이러한 의미 있는 진술들로부터 나온 의미군들을 주제로 발전시켰다. 둘째, 이러한 의미 있는 진술들과 주제들은 연구 참가자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조직적 기술을 작성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연구 참가자들이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영향을 미친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기술, 상상적 변형 또는 구조적 기술을 작성하는데 사용된다(Moustakas, 1994). 셋째, 연구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어 구조적, 조직적 기술로부터 현상의 ‘본질’을 제시하는 복합적 기술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을 25개의 의미군(meaning unit)을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적인 11개의 주제(topic)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근거로 자료에서 도출한 본질을 파악하여 이를 공통적인 4개의 범주(category)로 통합하였다.

3.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reswell과 Miller(2000)가 제시한 전략들 중에서 동료 검토(peer review), 연구 참가자 확인

(member check), 외부감사(audit)를 실시하였다. 동료 검토를 위하여 공동연구자들과 여러 차례 연구 결과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판단중지(epoche)를 하기 위해 연구 참가자가 진술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주관적인 경험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공동연구자간에 검토하였다. 이는 연구 참가자의 경험을 밝히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과거 지식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Giorgi, 2009). 연구 참가자 확인을 위해 연구 참가자 중 2인에게 연구결과를 이메일로 검토를 의뢰하였다. 외부감사에서는 연구에 참가하지 않은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 2인과 아동학전공 박사이면서 질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1인에게 연구결과 및 해석이 자료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목적과 연구과정,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가 동의서 원본은 참가자에게 전달하고 사본은 연구자가 보관하였으며, 연구에 참가하기로 동의하였더라도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 연구 참가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여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인터뷰를 녹음한 파일은 자료를 전사한 후에 모두 삭제하였다. 연구 자료를 전사한 전사자들도 연구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를 하겠다는 서명을 서면으로 받았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연구 참가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참가자 모두에게 ID를 부여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확장된 자녀청소년기와 지연된 자녀독립기

본 연구의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5개의 의미단위를 근거로 총 11개의 주제가 구분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4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젊은 세대의 취업난

연구 참가자들은 과거에 본인이 취업을 할 시기의 사회적 상황과 달리 젊은 세대가 취업난을 겪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표 2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 역할 경험에 대한 범주

범주	주제	의미단위
확장된 자녀청소년기와 지연된 자녀독립기	젊은 세대의 취업난	-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자녀의 취업난에 대한 안타까움 - 경쟁사회에서 자녀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램
	성인기이후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한 관심과 지원	- 자녀청소년기보다 적극적인 진로에 대한 관심 - 자녀가 원하는 삶을 지지하기 - 자녀의 진로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하기
	자신의 성인기모습과 자녀를 분리하기	자신의 성인기와 다른 자녀의 모습을 수용하기 - 성역할의 변화에 대해 적응하기
	유아기와 아동기 부모 역할에 대한 아쉬움	- 가장역할만 충실하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함 - 자녀와 함께 하는 정서적 유대감의 중요성
자녀의 발달에 따른 아버지 역할의 변화	청소년기에 부모와 자녀관계의 갈등의 극복	- 자녀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갈등과 어려움 - 강압적인 부모 양육태도와 부족했던 대화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해주기	- 자녀와 민주적인 대화하기 -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기 - 자녀와 점차 동등해지는 부모와 자녀관계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 역할의 지향점	- 조력자이자 동반자 -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음 -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허망함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경험과 다르게 노력하기	- 몸에 밴 무뎌뚝하고 권위적인 부모의 모습 - 자녀와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
	끝나지 않는 부모 역할	-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과 다르지만 끊임없는 자녀에 대한 희생이 지속됨
노년기를 맞이하기	부모와 자녀세대에 대한 이중적인 책임	- 부모의 노후에 대한 책임과 걱정 - 자녀에 대한 지원이 계속됨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준비	-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기 -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삶 -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기

을 갖고 있었다. 자녀가 취업을 해서 독립을 하지 못하는 점이 본인의 문제라고 여기기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자동화로 인한 변화의 차원이라고 생각하였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경제적인 성장기 속에서 비교적 사회인으로서의 진입이 수월했지만 현재 자녀세대가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어려움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집에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우린 대학만 졸업하면 다 취업이 됐잖아. 노는 애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스펙 쌓기 바쁘잖아. 스펙을 쌓아도 직장을 못 들어가니까. 개들은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우린 공부는 안한 것은 아니지만 노는 시간이 많았던 말이야, 친구들하고.” (참가자 6)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는 경제 확장기였잖아요. 고도 성장기여서 취직 걱정도 안됐었고, 사회적으로도 특별하지 않아도 승진이 금방 되고 사업도 잘 확장이 됐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잘 안되니까 안타깝고 많이 미안하죠.” (참가자 10)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경제적 성장기에 치열하게 살아온 삶은 힘들었지만 자녀세대는 경쟁적인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취업과 함께 결혼시기도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지는 집에서 이후 세대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컸다.

“좀 편안하고 안락한. 부모세대와는 달리. 부모세대는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좀 편안하고 자기가 이루는 것 원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가자 11)

“내가 태어나서 만약 100년 산다고 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계속 연결지어져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주가 있을 것 아니야. 그런 게 한 마디가 없어지면... 개인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사람 다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모두 몇 십 년 후 없어지는 거죠...(중략)...난 젊은이들의 그런 의식은 이해가 가요. 자기도 살기 힘든데, 자기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애 키우냐고” (참가자 2)

성인기이후 자녀의 진로발달에 대한 관심과 지원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녀가 청소년시기에 주로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와는 달리 사회인으로 어떠한 진로와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대학진학까지는 어머니가 자녀의 진학에 대해 비교적 많은 개입을 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아버지들이 보다 현실적인 진로에 대해 조언해주었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었다. 과거에 자신의 부모들은 무조건 출세를 바란다거나 특별히 자녀교육에 큰 관심이 없었다. 이는 과거의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급급하였으며 자녀수가 많다보니 일일이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개입을 하기에는 어려웠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살아온 사회에

서 알게 된 지식이나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느껴졌다.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아주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업에는. 그런 이제 본인이 욕심을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꿈이 그거면 거기에 걸맞은 뭐 공부가 됐던 활동이 됐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압박은 했어도 원래 목표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들 뜻을 반영하려고 했죠.” (참가자 7)

“옛날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빴죠. 뭐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고 어떤 가치관을 심는다던가...(중략)...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어요. 아무래도 진짜 거의 옛날 분이셨으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뚝뚝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우니까 가능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나의... 부모의 생각에 대해서..” (참가자 10)

연구 참가자들은 자녀가 부모의 기대보다는 자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신이 성인으로서 성장하면서 늘 사회적으로 책임감과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금 자녀들은 자신이 현재 좋아하는 것을

찾고 즐기는 삶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애들은 미래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지금의 삶을 즐기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자기의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30살 때보다 지금의 30살의 애들이 난 더 현명하다고 봐요.” (참가자 1)

연구 참가자들은 이전 부모세대와 달리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려고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다. 자녀가 빠르게 진로를 결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이전에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경험하고 탐색하기를 원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완전 다르죠. 가정환경부터가 다르죠.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었으니까...저는 제 어려웠던 것을 자녀들한테는 그 어려움을 덜게 해주려고, 저희들(자녀들)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뒷받침 해줄 수 있으니까 복 받은 거죠.” (참가자 2)

“저는 이제 사실은 계속 이제.. 해줄 수 있을 때 해라.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해라. 지금이니까 힘들고 그래도 하는 거

지.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 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가자 10)

자신의 성인기모습과 자녀를 분리하기

연구 참가자는 자신이 자녀와 비슷한 시기에 부모의 기대에 맞추고자 하였지만 현재 자신들의 자녀는 무엇보다 개인을 중심으로 자신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자녀의 모습을 조금씩 수용하면서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분리하며 개별화과정을 겪고 있었다. 가족체계이론적 관점에서 가족생활주기의 중년성인기는 수많은 가족발달 전이가 동시에 발생된다. 자녀가 성인기로의 진입은 ‘진수(Launching)’로 표현되는데 이는 첫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모든 자녀가 자기 삶을 살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된다. 가족생활주기 관점에서 자녀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의 전이는 자녀의 독립에 의해 구분되어 이 시기동안 자녀는 가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독립하며 성인역할과 책임을 맡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맞는 부모의 도전은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며(Carter & McGoldrick, 2005) 부모는 자기 역할과 정체성을 변화시켜 자녀의 개별화과정에 참여해야 한다(McCullough & Rutenber, 1989).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아직 물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않았고 부모 역시 이러한 개별화를 지원하려는 준비를 시작하면서 대부분 자녀의 독립이 지연되고 있었다.

“나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이 고생해

서 학교를 보내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랄까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부모님의 힘이, 아들이 잘 되게 그게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래도 아들이 올바른 직장 하나 갖는 게 부모님의 굉장히 큰 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위주예요. 본인 위주.” (참가자 1)

“바라는 건 뭐냐. 조금 더 내가 내 품에서 떠나는 거리를 두고 지내지만은 나 이 먹은 정조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서운해.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하고 오겠다고 하고 힘들지만, 상황 다 알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서운한 것도 있고. 있는데 있는 것뿐이지 뭐. 깊숙히 있는 거지” (참가자 4)

“예전에 부모들은 노후 준비가 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부모를 공양했으니까...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밑에 애들이 우리보다 못 버니까...그럼 애들한테 의지를 못한다는 거죠.” (참가자 10)

“이제는 자녀들을 독립시킬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녀독립을 옛날에는 유럽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20살이 되면 아이들 독립을 위해 용돈을 안 준다던지... 근데 우리사회는 20살이면 아직 어린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고 적어도 부모 슬하에 있는 것은 30살까지는 남자든 여자든 수명이 길어지니까,

교육연한도 길어지니까...30살까지는 함께 하더라도 30살 넘어서는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강제적인 독립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자립심이 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참가자 2)

참가자들은 자녀가 앞으로 결혼을 할 경우에 자신과 달리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나 육아 분담에 대해 남녀가 서로 협력적으로 하는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자녀세대를 이해하여 세대 간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요즘 이제 우리 세대의 맞벌이는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다 여자가 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맞벌인데 너도 가사를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참가자 1)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주방 쪽 가면 고추 떨어진다고 절대 안 시켰지. 그런데 지금은 남자도 해야 한다고 애 엄마가 시켜. 곧잘 해. 가끔 노는 날, 니가 라면 끓여. 아침 해. 하고” (참가자 6)

2. 자녀의 발달에 따른 아버지 역할의 변화

유아기와 아동기 부모 역할에 대한 아쉬움
자녀가 유아기 아동기 시절에는 자신의 사

회적 활동이나 가장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하다 보니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거나 육아를 잘 하지 못한 점을 토로하였다. 그 시기에는 자신들이 사회활동에 전념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만을 알았기에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해 아쉬움을 느꼈다.

“나는 그렇게 살았어. 죽자 살자 하고 그게 할일의 단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깐 아니지. 가족과 시간을 가져야하고, 에너지를 쏘아야하는데 회사에만 다 쏟고, 물리적으로 다 떨어져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가자 4)

“유아, 아동, 청소년기에는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어. 나는 돈만 가져다주면 끝이야.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이빨이 하나도 먹히지가 않아. 권위가 없어. 같이 함께한 시간이 없어서. 나는 거의 국내에서도 현장이나 본사나 거리적으로 집에 가질. 얼굴을 보질 못했으니까 애들은 또 오죽 바빠 과외해야지. 서로가 바쁘지.” (참가자 4)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녀가 아동기까지는 아버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아주는 것, 자녀와 스킨십을 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아버지가 일과 가정과의 양립에서 일에만 치중하지 않고 가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충실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참가자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기대를 하기보다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이들하고 많이 좀 놀아줘라, 놀아줘서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등이 되라고, 일등을 가르치지 말아라. 같이 어울리는 것이, 같이 어울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앞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참가자 1)

“우리 사회가 그런데, 30대 40대에 직장에 충실하자인데.. 자녀들한테 필요할 때도 그때잖아요 사실은 아빠가 필요할 때. 같이 놀아주고 함께 대화해주고 고민 들어주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부터 초등학교 과정은 부모와 많은 시간을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부모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가자 2)

청소년기에 부모와 자녀관계의 갈등의 극복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자녀가 아동기때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반항적으로 여기게 되면서 부딪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당시에 좀 더 민주적으로 자녀를 존중해주고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가자 중에 자녀와의 갈등을 겪어내면서 오히려 자녀가 성인이 되

었을 때 좀 더 친근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은 애하고는. 제가 작은 애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게 작은 애가 어릴 때부터 아주 고집도 세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이후에는 아빠하고 조금 갈등관계가 좀 있어서 애엄마가 많이 힘들어했죠. 그때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후회는 들더라구요.” (참가자 7)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큰애랑은.. 그 때는 큰애가 사춘기가 오면서 저랑 애기를 안했어요. 눈을 안 마주쳐가지고.. 되게 그때 힘들었는데.. 큰 애가 고등학교 때 맨날 게임만하고 해서 그게 악순환이 됐던 거고.. 큰 애랑 애기하게 된 계기는 애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기숙학원에 1년간 가있으면서.. 그때 떨어져 살고 힘들니까 개가 마음을 연거예요. 이제..” (참가자 10)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해주기

연구 참가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전보다 성인이 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태도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먼저 시도하는 노력을 하였고 서로 의견을 상호보완하면서 가족 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점차 자녀가 부모의 입장을 공감해주거나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가족 내 대화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였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놀이보다는

성인으로서 아버지가 대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해진 것과 부모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이 먼저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많이 들어주려고 했었죠. 나의 고민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내 집안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해주고,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참가자 2)

“아이들이 머리가 크니까 함부로 대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할 시점인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참가자 8)

“어느 순간에 ‘어 그래? 내 나름대로 너희들과 소통이 난 그래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난 다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기준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는 걸 처음 들었다. 그래 그러면 그 부분을 아빠가 좀 고쳐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가자 9)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 역할의 지향점

연구 참가자들은 성인기 자녀에게 자신들의 부모로서 역할의 의미를 사회 안에 적응하고 버텨나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든든한 버팀목’, ‘울타리’, ‘마중물’이라고 표현하였다. ‘마중물’이란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을 의미하는 것(국립국

어원, 2019)으로 자녀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기 위해 부모가 촉진해주는 ‘비계(scaffolding)’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가 아동기까지는 돌봄과 양육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자녀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면서는 점차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동반자적인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 내 마음이 동하고 너희들의 장래를 위한다고 판단이 되면 마중물 역할을 해주겠다.” (참가자 4)

“이제는 제가 배풀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그거를 안 받아주기도 하지만 해줘도 안돼요. 컸기 때문에. 이제는 아빠로서 역할보다도 조력자, 가족으로써 동반자 형태죠. 저는 부모, 특히 아빠라고 하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호와 행복을 지키거나 수호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라면 성인기 자녀를 두면 그런 게 없어지고 조력하고 동반하는 거죠. 어렵죠.” (참가자 11)

대부분 참가자들은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자녀문제에 대해 부부가 함께 논의하기보다는 아내에게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진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처럼 좀 더 편안하게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였다. 특히 아버지들은

이전에 전통적인 유교적 분위기에서 가장으로서 가족 내에서 권위가 있고 주도적이었다면 점차 아내와 자녀의 의견이 주가 되면서 아버지로서 자신이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게 됨을 느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일해 왔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줄어들면서 허망함과 상실감이 들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제 그 집사람하고 정확하게 역할분장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교육이나 아이들의 문제는 집사람이 하는 거로 이렇게. 제 마음으로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집사람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느냐. 그런데 가끔 아쉬울 때가 있죠. 어느 학교로 간다 이럴 때. 왜 그렇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제가 갖고 있는 정보 내에서 할 텐데. 보통 본인들끼리 얘기가 되고 정리가 되고 나서 하니까. 그랬을 때 얘기를 하기가 그런 것. 그런 현상은 거의 뒤에서. 아까도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쪽. 역할을 주로 하고.”(참가자 3)

“그 때는 지 엄마하고만 얘기하다가 내가 마음을 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눈 높이를 맞추게 되더라고. 기대치가 높아서 애를 거기에 맞추려니까 굉장히 나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그런데 내가 개의 눈높이에 맞춰주니까 편해지더라고.” (참가자 6)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애들 위주

로 안가면 아빠라는 타이들이 도태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도권은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야. 사실 부모지만 주도권은 자식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그니까 나이가..아빠가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50대가 넘어가면.. 애들이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가 되면 많이 차이가 나지.. 지금 보면 젊었을 때는 아빠가 위신이 서는데 50만 넘어가면 정권이 다 여자들한테 넘어가요. 허망함을 느껴요.” (참가자 5)

3.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경험과 다르게 노력하기

참가자들이 자신의 원가족 아버지가 대부분 무뚝뚝하고 소원했던 점과는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변화하지 않는 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부모가 자녀와의 분리과정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부모가 원가족에서 물려받았던 다세대 간 유산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즉, 자기 부모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안, 정서적 반응성, 미해결된 분노는 자녀의 성인 지위를 수용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방해한다(Anderson & Sabatelli, 2016)는 점에서 어떠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녀수가 많고 형제순위에 따른 차별이 많았지만 참가자들은 적은 수의 자녀를 키우면서 가능한 공평하게 지원해주려고 하였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무뚝뚝한 아버지 상 과거의 그것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의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유해했죠. 우리 세대가 과거의 아빠가 그렇게 했던 부분을 사실은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정이 되고 있어요.” (참가자 9)

“차별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형이 ** 중고등학교를 다니니까 너도 가야한다. 저희때부터는 중학교를 무시함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중압감때문에, 가출도 했다가 잡혀오고 그랬었어요. 실력이 안 되는걸 갈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선생님 찾아가서 **고 써주십쇼 하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써줘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2차를 가게 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2차 인생이 된 거예요.” (참가자 8)

끝나지 않는 부모 역할

참가자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희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던 것을 보면서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열심히 살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참가자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에게는 부모가 원하는 것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를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부모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자녀에 대해 끊임없이 지속되는 부모의 희생과 관심이 지속되는 점에서 유사한 접점이 있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 평생을 본인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산거잖아. 근데 나도 물론 자식들이 커갈수록 내가 뭐 투자하고 싶어도 나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투자를 하지. 그런 거지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살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사려면 때려치우지. 자식들이 커가면 못하지, 그러니까 직장에 나오고 맞벌이를 하지. 우리 둘이 잘 먹으려고? 아니잖아.” (참가자 6)

“부모 역할이 끝나는 건 부모가 죽어야지 끝나는 거지 부모 역할이란게, 아니 사실 죽어도 부모 역할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예.” (참가자 8)

4. 노년기를 맞이하기

부모와 자녀세대에 대한 이중적인 책임

연구 참가자들은 아직 자신의 부모의 노후 생활을 책임져야 하며 동시에 자녀세대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하는데 부모로서 경제적인 지원이 남아 있는 것에 걱정과 부담을 느끼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중년기에 접어든 부모가 가족체계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 아직도 중년세대인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노년기인 부모세대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규칙을 발전시켜야 할 요구가 지속적으로 부여된다. 중년성인 세대는 가족체계에서 노년세대와 젊은세대의

발달적 요구 사이에 끼여 있어 ‘양세대 압박 (generational squeeze)’을 느끼게 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Marks, 1998)는 것이 나타났다. 이 시기가 또한 은퇴를 하거나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경제적인 압박과 맞물리면서 그 부담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 5등급이거든. 주간보호센터 가계서. 8-6는 가시고 6시 이후는 거의 집에 있어 어머니 옆에 있어야하니까. 어떻게 봐주고 어떻게 키워. 말이 안 되잖아. 안된다고 했더니 서운한 가봐. 서운해도 할 수 없지.” (참가자 4)

“현직에 있을 때는 애들이 하고 싶을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집을 한다면, 어린이집을 한다면 했을 때 뭐 돈도 좀 대줘야 되고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자녀에 대한 거 보면 아빠는 머니(MONEY)하고 유사하다.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빠의 머니, 그러니까 아빠의 주머니겠죠.” (참가자 9)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준비

연구 참가자들은 노년기에 성공적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여가,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후 노년기시기에는 지원의 위계가 점차 달라지게 되므로 자녀에게 자신의 건강과 경제와 관련한 의존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을 원하였다. 현실적으로 자녀세대가 경제적으로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예전에 부모들은 노후 준비가 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부모를 공양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밑에 애들이 우리보다 못 버니까... 그럼 애들한테 의지를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 (참가자 10)

“그래서 이제 뭐 퇴직하고도 나는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고, 그냥 뭐 집에 있고 또 뭐 30년이 넘게 회사를 다니고 했으니 1-2년 동안 좀 쉬었다가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나이가 이제 60하고 63, 65하고는 취업하는 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미 발을 들여놓은 상태는 모르겠지만 새로 발을 들여놓기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퇴직하면 바로 그냥 한두 달 텅 두고 바로 그냥 취업하려고 해요.” (참가자 1)

참가자들은 노년기에 제2의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급여보다는 평소에 자신이 잘 하고 좋아하는 일과 연관된 것을 우선시 원하였다. 아버지들은 지금까지 삶에서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책임과 역할을 집중하였지만 앞으로 노년기에는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즐기는 삶을 원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저는 잘 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놔
어요. 좋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닭아 논 노하
우가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잘 다닐 수
있고, 하여튼 남들이 하는 건 다해보고
싶은 게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참가자 8)

참가자들은 노년기에 대한 계획을 위해 지
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을 중심으로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자신이 사회인으로 해온 일이나 능력
을 활용하여 이후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단
순히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이나. 내가 사회생활에서 받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되돌려 줄 수 있겠는가. 그
게 보람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뭐 밥
먹고 술 먹고 건강관리만 하는 것이 인
생은 아니잖아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거죠.” (참가
자 2)

“좀 그동안에는 직장생활에서 갖고 있
었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 환원
하는. 사실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디에 거주하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거
의 잘 몰라요.” (참가자 7)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아버지로
서의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장된 자녀청소년기와 지연된
자녀독립기’, ‘자녀의 발달에 따른 아버지 역
할의 변화’,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노년기를 맞이하기’ 등의
의미 있는 경험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인 자녀에 대해 걱정과
안쓰러움을 느끼며 자녀의 진로에 대해 지속
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책임
을 다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는 성인이 되기를
원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살아왔던 시대
에 비해서 현재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였다. 과거에 비해 청년실
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점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성인기로 진입
하는 자녀의 취업문제가 심각하다는 면(김영
란 등, 2017)에 근거할 때,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의 취업난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아버
지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
록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이고, 부모의
기대보다는 자녀 스스로 원하는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녀가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고 지지해줄 때, 자
녀들은 자신의 진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
하고 결정하게 되고(심예지, 유순화, 2018), 부

모-자녀 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확신을 갖는 것을 볼 때(공성화, 2016), 부모의 안정된 지지와 격려는 자녀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자녀들이 청소년이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녀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각 발달단계에서 나타나지만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역할은 다르다. 즉, 청소년기는 진로 및 직업 탐색을 시작하는 시기로, 부모는 청소년 자녀가 자아정체감 발달과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미래의 진로결정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성인기의 경우, 진로에 대한 고민은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는 초기성인기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는 발달과정과 맞물려있다. 따라서 초기성인기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고민은 자녀가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독립된 개별 성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기 성인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가 진로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성인 자녀가 취업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성인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신의 욕구를 중시하는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아버지 자신과 자녀를 분리하며 개별화 과정을 겪고 있었고, 자신의 성인기와는 다른 자녀의 모습을 수용하였다. 무엇보다 아버지 자신이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르게 자녀들이 맞벌이로 살아갈 경우, 가사와 육아부담에 있어서 남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행복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김경미, 2017)에 근거할 때, 아버지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젊은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았고, 자녀들의 어린시기에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지만 아버지 자신의 노력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가 변화됨을 느끼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들은 자녀가 영유아기 때부터 아동기 때까지는 경제적인 가장 역할에만 치중하다보니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였다. 영유아기나 학령기는 주로 어머니의 집중적인 관심이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어머니에게 강요하는 모성이데올로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아버지들은 부모 역할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귀애, 김영희, 2016)이나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Dunn, 1993)에 근거할 때, 자녀의 긍정적 발달에 아버지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는 다르게 성인 자녀들은 독립과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성공적인 성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 즉, 아버지 역할은 자녀의 영유아기 시절부터 성인기까지의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이 가족 내 경제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양육자 및 조언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어머니에 비해 적다하더라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더 민감하게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을 볼 때(Dunn, 1993),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구분되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과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시켜 유아기 때부터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가족 내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아버지 양육참여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대부분 영유아기나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기에, 본 연구에서 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을 심층적으로 탐색해 본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참가자인 아버지들은 자녀의 청소년 시절에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겪었지만 성인이 된 자녀와는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으로서의 의무감을 지니고 있는 한국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과 가족과

의 돌봄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역시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들과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였으나 중년기에 접어들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자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였으며, 사회·정치문제, 종교문제, 진로문제 등 성인으로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자녀와 친밀해져갔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 평등한 관계가 되었을 경우 좀 더 자연스럽게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주로 권위주의적인 방법으로 양육해왔다고 보고하였으나, 성인이 된 지금의 자녀들에게는 예전의 양육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즉, 자녀의 발달적 변화와 더불어 대화를 통한 민주적 방법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더 긍정적임을 깨닫게 되었고, 자녀의 취업과 결혼 등 성인기 자녀가 지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녀의 생각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보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성인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부모 역할을 해냈을 때, 그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능한 부모는 자녀의 발달적 변화에 따라 양육행동을 스스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박성연, 2006)을 증명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온정적이고 좀 더 친근하게 성인기 자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양육기술을 알려주어 성인 자녀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가한 미혼 성인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원했으며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가족 내에서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허망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하였지만, 자녀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했던 아버지들은 결국 가족 내에서 설 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앞만 내다보며 달려온 남성들이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Levinson, 1986),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아버지들의 심리적 위기감을 더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개입방법과 가족관계를 통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자신의 부모가 무뎌뚱하게 대하거나 형제 간 차별적 양육을 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부모에게 부정적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이후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육을 보임으로써, 양육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중년기 아버지들은 자녀독립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양육과는 다르게 민주적 양육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변화된 양육행동은 자녀와의 분리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것이라 예상한다.

경제적/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성인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끊임없이 성인 자녀에게 희생하며 자녀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부모들 역시 자

녀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연구 참가자인 아버지들은 이와는 다른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지원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부모 역할을 하기 원하였다. 자녀독립기에 속해있는 성인 자녀들의 분리개별화 발달과업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자녀의 삶을 지지해주는 양육은 자녀가 성숙한 개인으로 이행해 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부모-자녀 간 성공적인 분리를 도울 것이라 예측된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 참가자인 초기 성인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노부모를 보살피야 하는 책임감과 동시에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현대사회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 되었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것을 볼 때, 중년기 남성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년기 남성들이 부모부양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에 근거할 때(이남순, 2006), 노부모 부양을 원조할 수 있는 전문적 지도, 상담 서비스, 정서적 후원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녀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성인 자녀들의 경제적인 자립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볼 때, 부모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성인기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직업 알선 교육이나 잠재성 발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성인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연구 참가자인 아버지들은 중년기 남성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노년기를 대비하여 노후준비를 한 경우, 신체적, 경제적인 자원의 비축으로 인해 노년기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우울을 덜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정일영, 2017)나 노후준비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년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들(이승신, 2012; 정순희, 2015)에 비추어 볼 때, 노후준비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년층들은 노후준비를 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고 노후준비 교육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며, 노후준비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곽옥임, 2019). 따라서 중년층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이 성공적인 노후를 이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노후생활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조추용, 송미영, 이근선, 2009)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참가자인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시

대와는 다르게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인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의 진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이며 자녀들이 사회와 가정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해 나가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인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성인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또한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이 늦어지는 자녀를 심리적·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들은 성인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맞추어 성인기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장해가는 경험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노부모 부양과 노후준비가 중년기 남성들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 생애적 관점에서 아버지들이 후기 성인기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아버지 경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온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는 또 다른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4세 이상의 초기성인기 자녀를 대상으로, 연

령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 취업여부, 부모 동거여부 등의 변수들 역시 성인 자녀를 둔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에, 성인 자녀의 연령과 더불어 그 외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부모-자녀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면접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나, 11명이라는 소수의 경험을 전체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다르게 성인이 된 자녀를 양육하면서 변화된 부모 역할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를 준비하는 일은 중년기 남성들의 중요한 발달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적연구에서는 다루기 힘든 초기 성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기존의 성인 자녀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연구로 주로 어머니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며,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영유아기 및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초기 성인 자녀의 부모 역할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 역할의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 역할과 중년기 남성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초기성인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장민성, 김정은 (2017).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4(3), 19-35.
- 강유진 (2016). 부모동거 미혼성인자녀의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관련요인-세대 간 지원교환, 가족 부양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3), 387-403.
- 강현선 (2018). 성인기자녀의 부모의존 동거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3), 9-52.
- 공성화 (2016).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옥임 (2019).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교육 요구 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국립국어원 (2019).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 pageSize=10&searchKeyword=%EB%A7%88%EC%A4%91%EB%AC%BC에서 2020년 5월 27일 인출
- 권혜진 (2010).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역할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0(4), 87-106.
- 김경미 (2017).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웅, 이인수 (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명자 (1991). *중년기 위기감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영, 조선희 (2018).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충남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46, 37-63.
- 김영란, 장혜경, 이윤석 (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윤민 (2002). *중년기 남성의 일, 가족 역할수행 부담 및 심리적 복지*.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수, 김혜순 (2019). 부모공동양육과 유아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역할신념의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1), 25-48.
- 김은정 (2014).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학*, 27(1), 69-116.
- 김정민, 김혜민, 김용주 (2010).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77-87.
- 남진열, 김상미 (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2), 315-334.
- 박성연 (2006).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 박지원 (2016). *만혼 중년남성이 경험한 '아버지됨'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선아 (2008). *중년기 남성의 부부친밀감이 생활만족도 및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전지혜, 안정신, 정영숙 (2015).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971-990.
- 심예지, 유순화 (2018).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우연대처기술, 진로적응성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혁신연구*, 28(2), 423-443.
- 안태용 (2013). *중년기 한국인 적응유연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상미, 정혜성 (2016). 중년기 직장 남성의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4), 373-393.
- 용장식 (2004). *중년기 아버지의 심리사회적 위기감과 자녀양육참여도와의 관계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도를 중심으로 -*.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귀애, 김영희 (2016).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과 부부친밀감 및 역할수행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93-119.
- 이남순 (2006). 현대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2(3), 172-193.
- 이숙현, 서혜영 (2002). 기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직업 및 가족 변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4(2), 3-30.
- 이승신 (2012).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5(4), 43-61.
- 이윤석 (2011).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 연구: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3), 1-30.
- 정순희 (2015). 예비노인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8(1), 31-52.
- 정일영 (2017). 과거 노후준비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예술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1), 639-658.
- 조추용, 송미영, 이근선 (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 최연실 (2014). 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75-89.
- 최인영 (2007).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겨레 (2017. 02. 16). 스크럼족·연어족·부메랑키즈·키퍼스족을 아시나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2905.html에서 2020년 5월 20일 인출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2016). 다세대발달관점의 가족관계. 정문자, 정현숙, 정혜정, 전영주, 정유진(공역). 서울: 학지사.(원본 발간일, 2011).
- Brown, G. L., Mangelsdorf, S. C., & Neff, C. (2012). Father involvement, paternal sensitivity, and father-child attachment security in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3), 421-430.
- Carter, B., & McGoldrick, M. (2005). The expanded family life cycle: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perspectives. In B. Carter & M. Goldrick(Eds.), *The expanded family life cycle* (pp.1-24). Boston: Allyn and Bacon.
- Carter, B. E., & McGoldrick, M. E. (2000).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Boston: Allyn and Bacon, c1989.
-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방법론*.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공역). 서울: 학지사.(원본 발간일, 2013)
- Creswell, J. W., & Miller, D. L. (2000). Determining validity in qualitative inquiry. *Theory into practice*, 39(3), 124-130.
- Descartes, L. (2006). Put your money where your love is: Parental aid to adult childre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 137-147.
- Dunn, J. (1993). *Young children's close relationship*. Newbury, CA: Sage.
- Giorgi, A. (2009). *A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Pittsburg,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uld, R. L. (1978). *Transformations: Growth and*

- change in adult lif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 Lamb, M. E. (1986). *The Changing role of fathers*. In M. E. Lamb(Ed).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Lamb, M. E. (2013). *The changing faces of fatherhoo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From fatherhood as status to father as dad*. In M. A. Fine & F. D. Fincham (Eds.), *Handbook of family theories: A content-based approach* (pp. 87-102). NY: Routledge.
- Lamb, M. E., & Tamis-LeMonda, C. S. (2004). Fathers and mothers at play with their 2-and 3-year-olds: Contributions to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6), 1806-1820.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13.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L., & Mckee, B. (1978). *The seasons of men's life*. New York: Knopf.
- Marks, N. F. (1998). Does it hurt to care: Caregiving, work-family conflict, and mid-life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4), 951-966.
- McCullough, P., & Rutenberg, S. (1989). Launching children and moving on. In B. Carter & M. Goldrick(Eds.),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2nd ed., pp.286-310). Boston: Allun & Bacon.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Vassallo, S. Smart, D., & Price-Robertson, R. (2009). The roles that parents play in the lives of their young adult children. *Family Matters*, 82, 8-14.

1 차원고접수 : 2020.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0. 09. 17.

최종게재결정 : 2020. 09. 20.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Parental Role Experiences of Fathers of an Early-adult Child

Kim, Soojee¹⁾

Rhee, Sun-Hee²⁾

Kwon, Du Ri³⁾

¹⁾Grasuated School of Social Welfare, Suwon University

²⁾Dept. of Childhood Education, Soongsil Cyber University

³⁾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experience of middle-aged fathers as parents of an early-adult child. For this purpose, we interviewed eleven fathers with one or more early-adult child and analyzed the collected data us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result, four categories, eleven topics, and twenty-five semantics were emerged. The four categories were ‘extended child adolescence and delayed child independence’, ‘changes in the father’s role with child development’, ‘awareness of the parental role influenced by the father’, and ‘facing old age’. In conclusion, first, the fa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concerned and felt sorry for their early-adult children who had difficulty finding a job, and supported and remained interested the careers of their early-adult children. Secon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belatedly realized the importance of fatherhood in raising children, and although they did not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in their early years, the fathers’ own efforts led to changes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ird, fathers with early-adult children attempted to get along with their children by escaping from the parenting inherited from their parents, and made constant sacrifices for their early-adult children. Finally, fathers with early-adult children recognized that they should successfully play the role of a parent while also taking care of their elderly parents as children and preparing for their upcoming old 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cadem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middle-aged fathers with unmarried adult children.

Keywords: early-adult child, parental role experiences of fathers, phenomenological study